

고전서사의 심층서사와 콘텐츠의 기획 교육

—취약성예의 공명과 서사적 연대를 중심으로*

김수연**

—<차 례>—

1. 시작하며-콘텐츠의 이야기와 서사력
2. 콘텐츠의 서사 층위: 표층서사와 심층서사
3. 고전서사의 공간 특성과 심층서사의 성격
: '시공-경계공간'과 결핍의 응시
4. 공간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의 방향
: 취약성예의 공명과 서사적 연대의 기획
5. 마치며-고전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교육의 전망

<국문초록>

콘텐츠의 흡입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체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담기는 이야기이다. 콘텐츠의 이야기가 서사력을 갖추면 향유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콘텐츠의 이야기는 표층서사와 심층서사로 구성된다. 그중 이야기의 서사력을 결정하는 것은 심층서사이다. 심층서사는 대체로 인간의 관계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이 글은 고전서사의 공간 특성과 심층서사를 중심으로, 현대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고전서사의 공간은 '시공-경계공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시공-경계공간'에서 인물은 경제적 인물을 만나 대화와 경청의 방식으로 서로의 내적 결핍을 응시하고 취약성예 공명하며 서사적으로 연대하는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유자 또한 자기의 결핍을 발견하고 공감을 느끼며 그 결핍이 이해받고 위로받는 공명과

* 이 글은 2018년 8월 16일 한국고전문학회와 한국고전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서 「고전서사의 공간성과 콘텐츠화 방향-윤리적 서사 공간의 설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대 강사

연대에 참여하게 된다. 향유자는 심층서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향유자는 고양된 공감 속에서 자기 삶의 서사를 재구성할 힘을 갖게 된다. 향후 고전서사는 콘텐츠의 심층서사와 향유자의 내면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콘텐츠, 이야기, 표층서사, 심층서사, 시공-경계공간, <최치원>, <이생규장전>, <쌍갑포차>, <신과 함께>, <아는 와이프>

1. 시작하며-콘텐츠의 이야기와 서사력

일반적으로 콘텐츠라고 하면 디지털 매체에 담긴 내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안에 담긴 내용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종이에 적힌 것은 굳이 콘텐츠라 부르지 않으며, 영상과 같은 현대적 기술력에 의지한 매체에 담을 때 콘텐츠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명이 contents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어도, 그것은 현재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을 반영한다.

오늘날의 콘텐츠는 디지털 매체를 중시하는 인식에서 발견되었지만, 콘텐츠의 흡입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체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즉 이야기에 서사력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7월 25일 개봉한 영화 <인랑>은 190억 원을 투자한 대작으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블록버스터이지만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약 1주일 만에 상영이 종료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의 부족’이었다.¹⁾ 콘텐츠의 가치는 매체 기술력이 아니라, 그

1) 조영준, 「영화 ‘인랑’의 부족한 점, 이야기의 연약한 연결고리」, 『오마이뉴스』, 2018.8.1.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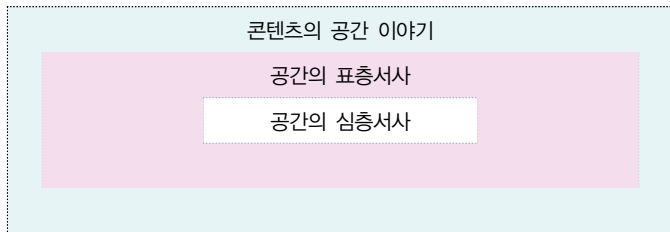
안에 담기는 이야기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야기가 서사력을 지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 인기를 끄는 콘텐츠의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경우 ‘고전적 공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웹툰과 영화에서 대중적 성공을 거둔 <신과 함께>이다. 이 작품은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저승길’과 ‘지옥’의 이미지를 이야기의 중심 요소로 삼았다. 물론 ‘고전적 공간’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모두 대중적 공감을 얻거나, 좋은 콘텐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전적 공간’의 어떠한 속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 위 작품의 공간은 어떻게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가?

이 글은 콘텐츠에서 그리는 공간의 특징을 살피고, 그것이 오래된 고전서사의 핵심적 공간 상상력과 만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서사 층위를 표층서사와 심층서사로 나누고, 콘텐츠의 심층서사가 대중의 내적 결핍을 응시하고, 취약성에 공명하며, 서사적 연대를 기획할 때 공감을 획득할 수 있음을 살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핍의 응시와 공명, 연대의 기획 공간을 제공하는 콘텐츠의 심층서사가 사실은 고전서사에서 익숙하게 상상해 온 ‘경계공간’의 특성을 계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전서사의 공간 특성과 심층서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등 역할을 할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화를 위해 고전서사는 전기(傳奇) <최치원>과 전기소설 <만복사저포기>, 현대 콘텐츠는 웹툰, 영화, 드라마의 <쌍갑포차>, <신과 함께>, <아는 와이프> 등을 중심대상으로 삼았다.

2. 콘텐츠의 서사 층위: 표층서사와 심층서사

콘텐츠의 이야기는 표층서사와 심층서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표층서사는 화소를 결합한 줄거리 형태의 이야기라면, 심층서사는 그 안에 담긴 내력과 사연이 될 것이다. 심층서사의 내력과 사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심층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간의 성격이 이야기의 서사력을 만들고, 서사력이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콘텐츠가 서사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려는 것이다. 주지하듯 심층서사의 성격에 따라 전체 이야기의 힘, 즉 ‘서사력’이 결정된다. 매체 기술력의 도움은 그 다음 단계에 고려될 일이다. 심층서사의 성격과 그로 인한 서사력이 어떠한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되는 매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전문학은 ‘선매체-후서사’의 방식으로 콘텐츠 기획에 참여했다. 매체를 먼저 결정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내용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그러다보니 고전문학은 본연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매체가 요구하는 화소와 표층서사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많은 경우 매체는 인물 화소인 캐릭터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 결과 캐릭터 연구가 전문적 영역을 이룰 만큼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캐릭터 화소의 비중 증가는 콘텐츠가 고전

문학의 고유한 가치보다 스타성을 지닌 배우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²⁾

‘선매체-후서사’의 방식은 콘텐츠 기획에서 고전문학의 서사력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작업의 비중과 의미를 약화시켰다. 이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시작이 ‘사업’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일 터이다.³⁾ 디지털화에 방점을 둔 매체 위주의 사업의 구도 안에서 고전문학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체에 적합한 화소를 제공하는 위치로 소외되었다. 이것은 고전문학의 현대적 소통과 가치 구현의 영역을 제한해가는 방향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⁴⁾ 콘텐츠 관련 영역에서 고전문학이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해체하고 소진했다는⁵⁾ 평가가 뼈아픈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전문학의 콘텐츠 기획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전의 콘텐츠화 교육 관련 연구는 대학 내 콘텐츠 기획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 개발 상황을 논의하였다.⁶⁾

-
- 2) 평균적으로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의 50% 이상이 한두 명 주연급 배우의 출연료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 3) 신동훈은 2002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을 고전문학 외부의 자본과 제도과 권력으로부터 ‘닥쳐온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사업’으로 제안된 콘텐츠와의 관계맺음이 지닌 충격을 표현했다.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2011, 121쪽.
 - 4)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2018, 119~159쪽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매체별 고전서사 콘텐츠화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을 적용한 모바일 콘텐츠 기획을 제안했다. 이 글은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와 구현매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에 적용할 소재 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 5)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2011, 122쪽.
 - 6) 관련 연구사 및 사례는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이들을 보면 대학 교육에서의 콘텐츠 기획도 매체 중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이 공모전 형태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 기획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수업이 전달 매체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내용 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고전문학의 콘텐츠화 관련 연구와 교육이 화소 개발을 통한 표층서사 구성에 집중하는 것은 콘텐츠의 소재 확장과 즉각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으나, 고전문학의 정신과 가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민의 지점을 남기고 있다. 콘텐츠화는 고전문학이 현대인과 의미 있게 교류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인데, 광산 채굴식의 소재 개발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고전문학의 콘텐츠화는 언젠가 폐광과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표층서사의 반복은 고전문학적 이야기를 이른바 ‘천편일률’이라는 편견에 가두게 될지 모른다. 이 글이 고전문학의 콘텐츠 기획과 교육 방안을 고민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매체의 소재 발굴이 아니라 심층서사의 발견에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캐릭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콘텐츠화 비중이 낮았던 공간에 주목하였다.

공간을 심층서사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화소와 표층서사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과 다르다. 그동안 많은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이 문학공간을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간을 화소로 사용하며 표층서사를 구성하는데 활용했다. 문학공간이 화소로서 콘텐츠에 참여할 때, 그것은 실재하는 장소를 전제로 한다.⁷⁾ 우리가 박완서의 ‘현저동’⁸⁾ 채만식의 ‘개복동’을

『한국고전연구』 37, 2017, 5~30쪽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7) 펠프는 장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제1요소로 꼽힌 물리적 환경은 공간의 실재성을 표현한 것이다. 에드워드 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0~115쪽.

8) 김연수, 『문학공간 ‘현저동’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겨울, 300~305쪽.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할 때⁹⁾ 문학작품 속 이야기는 실재하는 현저동과 개복동을 수식하는 소재에 머물 뿐이다. 해당 지역을 홍보하는 텍스트나 이미지에 박완서과 채만식의 작품 내용이 소재로 첨가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고전문학의 공간도 마찬가지다. <춘향전>의 남원, <배비장전>의 제주, <심생전>의 종로 등이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획에 참여할 때, 각 작품의 심층서사가 만들어내는 서사력이 작동하는 경우가 적었다. 향유자가 심층서사에 공감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춘향전>의 남원이 지닌 심층서사보다는 그것을 화소로 한 표층서사가 실제 남원을 소개하는 안내 정보와 디자인을 만들 뿐이다. 많은 지역 축제와 홍보 콘텐츠가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공간을 활용한다.¹⁰⁾ 콘텐츠가 문학공간의 심층서사를 읽어내지 못하고 문학공간을 실제 공간과 연결된 화소로 소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문학공간은 공간이 지닌 선형적 직관과 통찰보다 사건과 캐릭터의 설명을 위한 단순 배경이 된다.

공간을 화소로 한 표층서사는 콘텐츠의 이야기를 줄거리 차원에 머물게 하지만, 공간의 심층서사는 이야기에 서사력을 제공한다. 줄거리 차원의 이야기가 향유자와 맺는 관계의 수준은 서사력을 갖춘 이야기가 향유자와 맺는 관계의 수준과 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자는 ‘공감’을 형성한다. 공감을 형성하는 이야기 심층서사는 실재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상상력에 기반한 심리적 구조물의 속성을 지닌다. 물론 심층서사가 공간을 화소로 빌릴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심리적 공간의 성격을 획득하여 초현실적 공간에 대한 서사적 전망을 가능하게

9) 변찬복, 박종호, 『문학공간의 장소성 분석에 근거한 관광콘텐츠화 방안: <탁류>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31, 2016, 69~90쪽.

10) 공간 콘텐츠 기획은 주로 해당 공간을 형상화한 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변찬복, 박종호, 『문학공간의 장소성 분석에 근거한 관광콘텐츠화 방안: <탁류>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31, 2016, 86~89쪽.

한다. 현실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현실 공간에서 벗어남’은 오래된 소망이고 영원한 화두이기에, 콘텐츠를 기획하며 내면의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의 심층서사에 주목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심리적 구조물의 속성을 지닌 공간의 심층서사는 인간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다. 영화 <인셉션>은¹¹⁾ 상대의 욕망을 교체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꿈 속 공간’을 매개로 구현했고, 영화 <신과 함께>는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배신지옥’과 ‘지옥길’을 통해 드러냈다.¹²⁾ 공간의 심층서사는 공간과 인간 내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향유자의 심층 기제와 상호작용하기를 시도한다.¹³⁾ 콘텐츠 공간의 심층서사와 향유자의 심층 기제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 공감이 만들어진다.

공간 콘텐츠의 심층서사와 인간의 심층기제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형성하면, 콘텐츠의 이야기는 서사력을 획득하게 된다. 공감을 획득한 이야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혹은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는 서사적 전망을 만들어낸다. 서사적 전망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이야기의 서사력은 인간의 결핍을 보완하고,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인간은 현실적 진단보다 ‘서사적 전망’에서 삶의 동력을 얻는다. 대표적 예가

11) 2010년 7월 21일 개봉된 영화이다. 2017년 9월 기준 한국의 관객수는 580만 명에 이르렀다.

12) <신과 함께>의 ‘배신지옥’은 망자가 이승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특히 8월 1일 개봉한 <신과 함께>2의 공간서사는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의 나약함,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그렸다.

13) 인간의 심층기제란 인간의 삶을 운영하는 심층의 서사를 말한다. 콘텐츠에 심층서사가 있듯 인간도 심층의 서사가 있다. 심층의 서사가 인간 삶을 운영한다는 입장은 ‘문학치료학’의 핵심 명제인 ‘인간 활동이 곧 문학이며 나아가 인간 그 자체가 문학이다’에 잘 드러난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8쪽.

‘행복’이다. ‘행복’은 우리가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행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기꺼이 수용하는 삶의 이야기 방향, 즉 서사적 전망이다.

3. 고전서사의 공간 특성과 심층서사의 성격

: ‘시공-경계공간’과 결핍의 응시

콘텐츠의 이야기가 서사력을 획득하여 향유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이야기 속 공간의 심층서사는 향유자 내면의 결핍을 포착하고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의 결핍을 포착, 응시하는 공간의 심층서사는 고전서사의 주요 장르인 ‘전기(傳奇)’ 및 ‘전기소설’의 공간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⁴⁾ 한국의 ‘전기(傳奇)’는 초기작품에서부터 ‘불우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간의 심층서사’에 주목한 서사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 작품이 10세기 전후에 창작되었다고 알려진 <최치원>이다.¹⁵⁾

주지하듯 <최치원>은 역사적 인물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중국에 유학하여 강남지역 우수현의 현위가 된 최치원이 부임지에 있는 무덤 ‘쌍녀분’에 조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조문한 날 밤에 ‘쌍녀분’의 주인인 팔랑과 구랑을 만나 밤새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인물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14) 전기와 전기소설의 용어와 장르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구체적 논의는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양상」, 『민족문화연구』 28, 1995, 69~92쪽;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5~256쪽 등을 참조. 이 글에서는 ‘전기’라는 용어를 광의로 보아, 전기소설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15) <최치원>의 창작시기, 작가, 장르 규정에 대해서는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1995, 31~52쪽; 이정원,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사학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1~187쪽 참조.

때 동침을 하고, 다음날 헤어진다. 이 작품은 ‘쌍녀분’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최치원>이 ‘쌍녀분이라는 공간에 얽힌 이야기’임을 말해 준다.

<최치원>의 작가는 작품의 핵심 공간이자 이야기의 주요 테마로 ‘쌍녀분’을 선택했다. ‘쌍녀분’은 <최치원>의 화소인 것이다. 화소 ‘쌍녀분’은 ‘최치원이 쌍녀분에서 죽은 여인들을 만나 수작하고 헤어졌다’라는 표층 서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작가는 ‘쌍녀분’을 표층서사의 소재로만 다루지 않았다. ‘쌍녀분’이라는 공간에서 전개되는 서사가 <최치원>의 심층서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쌍녀분’은 어떠한 공간인가? 왜 ‘쌍녀분’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 최치원만이 ‘쌍녀분’ 주인의 대답을 받았을까? ‘쌍녀분’의 주인 팔랑 구랑은 왜 최치원을 찾아왔을까? 작가는 ‘쌍녀분’이라는 공간에 얽힌 사연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최치원>의 심층서사가 지닌 의미의 규명은 이러한 질문들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쌍녀분’은 어떠한 공간인가? ‘쌍녀분’은 무덤이다. 무덤은 현실에 있는 공간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다. 현실에 있지만 현실에 없는 곳인 셈이다. 또한 무덤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곳이다. 우리는 제의(祭儀)의 형식으로 무덤 앞에서 죽은 이의 안부를 묻고, 산 이의 소식을 전한다. 무덤은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공간인 것이다. 최치원도 쌍녀분이라는 무덤 앞 석문에 조의하는 시를 썼다. 조의 시를 짓는 것은 쌍녀분 주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이다. 최치원은 시의 시작 부분에서 무덤 주인에게 “어느 집 두 딸이 남겨진 이 무덤, 쓸쓸한 황천에서 얼마나 이 봄을 원망했을까?”라며 안부를 묻는다.¹⁶⁾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의 주인을 호명하고, 쓸쓸한 곳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

16) 이대형 편역, 『수이전』, 소명, 2013, 38쪽, “誰家二女此遺墳, 寂寂泉扃幾怨春.” 현대역은 필자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꽃 같은 마음씨, 꿈에서 만나는 일 허락한다면, 긴 밤에 나그네 위로하길 어찌 꺼려하리오?”라고 의양을 묻는다.¹⁷⁾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쌍녀분 앞에서 최치원은 죽은 이와 대화의 시도를 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꿈꾸었다. 그것은 쌍녀분이 무덤,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곳, 삶과 죽음의 경계 공간이기에 가능한 소망이다.

쌍녀분이 삶과 죽음의 경계공간이라는 점은 그것이 물리적 장소 개념을 초월하는 공간임을 알려준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친 시간과 내력, 즉 ‘생애’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덤은 시공이 얽혀있는 생애 개념을 포함하는 경계공간이고, 우리는 이것을 ‘시공-경계공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공-경계공간’인 무덤에는 무덤 주인의 내력도 담겨져 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사연도 보태져 있다. 쌍녀분도 마찬가지이다. 쌍녀분 옆에는 ‘초현관’이 있다. 초현관을 찾는 선비들은 자연 쌍녀분을 지나게 된다. ‘초현관’은 말 그대로 ‘현자들을 초대하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쌍녀분은 고금의 이름난 현자들의 유람지가 되었다.¹⁸⁾

많은 현자들이 지나는 길에 쌍녀분을 보았겠지만, 쌍녀분 주인이 만남을 허락한 이는 최치원 하나이다. 최치원은 “무덤에 갇든 지 오래되었고 초현관에서 멀지 않으니 영웅과 만나신 일이 있을 터인데 어떤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는지요?”라고 질문한다. 이에 팔랑과 구량은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비루한 사람들뿐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기쁨이 오산처럼 수려하신 수재를 만났으니 함께 현묘한 이치를 말할 만합니다.”라고 답한다. 이것은 팔랑과 구량이 수많은 현자들 중 처음 허락한 이가 최치원이라는 뜻

17) 이대형 편역(2013), 위의 책, 38쪽, “芳情儻許通幽夢, 永夜何妨慰旅人.”

18) 이대형 편역(2013), 위의 책, 38쪽, “雙女墳, 古今名賢遊覽之所.”

이다. 최치원이 시를 써 말을 건넨 그날 밤, 그녀들은 처음으로 시녀 취급을 통해 답시를 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쌍녀분’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 최치원만이 ‘쌍녀분’ 주인의 답시를 받았을까? 이것은 앞서 말한 바, 최치원이 안부를 물으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황량하고 쓸쓸한 무덤 앞에서, 이름 없이 죽어 잊힌 자신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녀들이 마음을 연 것이다. ‘쌍녀’ 혹은 ‘팔랑 구랑’이라는 호칭에서 보듯, 그들은 그저 어느 집의 여덩째, 아홉째 딸이다. 그들이 잠든 무덤은 돌보는 이가 없어 먼지만 가득하다. 최치원은 시에서 “무덤 앞 쌍인 먼지로 이름을 묻기가 어렵구나”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름 없이 잊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그들은 이름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내력과 죽게 된 사연도 잊혔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 걸지 않고, 물어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최치원만이 그들이 황천에서 잘 지내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며 말을 걸었기에, 팔랑 구랑은 최치원에게 답을 한 것이다.

‘쌍녀분’의 주인 팔랑 구랑은 최치원에게 답시를 보냈을 뿐 아니라 직접 현현(顯現)하여 그를 찾아온다. 왜 찾아왔을까? 그들은 취급이를 통해 보낸 답시의 마지막에, “마음 속 일을 말하고 싶으니 잠시 만남을 허락할 수 있는지요?”라고 적어 만남을 청한다.¹⁹⁾ 그들이 최치원을 만나고자 한 것은 ‘마음 속 일’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자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름과 사연을 궁금해 하는 최치원에게 마음을 연 것은 팔랑 구랑이 오랜 시간 마음 속 사연을 이야기할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 자신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조문의 시를 받은 그 밤으로 최치원을 찾아와 자신들이 율수현 초성향의 부유한 토호 장씨 집 딸이라는

19) 이대형 편역(2013), 위의 책, 44쪽, “欲將心事說, 能暫暫相親.”

것, 각각 열여덟 열아홉 살일 때 부친이 소금 장수와 차 장수에게 혼인을 시키려 했던 것, 소금 장수와 차 장수가 마음에 차지 않아 울적해하다 요절하게 된 것 등.²⁰⁾ 팔랑 구랑은 최치원에게 이름과 가계는 물론 자신들이 죽게 된 사연까지, 전 생애를 풀어낸다. 자신의 마음에 맺힌 사연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기에, 최치원을 찾아온 것이다.

어째서 팔랑 구랑은 최치원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것이라 믿었을까? 그것은 최치원이 처음 말을 건넬 때 쓴 시에서 이미 드러난다. “꽃 같은 마음씨, 꿈에서 만나는 일 허락한다면, 긴 밤에 나그네 위로하길 어찌 꺼려하리오?”²¹⁾ 최치원은 팔랑 구랑이 꽃 같은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 하며, 자신과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요청한다. 그녀들이라면 나그네인 자신을 위로해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최치원은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율수현의 현위로서, 그 지역의 지방관인 최치원은 왜 자신을 나그네라 생각하고, 위로해 달라고 하는가? 구체적 사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현재 심리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은 아마 쓸쓸한 무덤의 주인과 같은 처지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색한 무덤에 마음이 가고, 그 주인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자신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제 작가가 ‘쌍녀분’이라는 공간에 얽힌 사연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이다. 쌍녀분 이야기의 심층서사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맺힌 사연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의 상상’이다. 내적으로 우울하고 맺혀있고 부족하여 괴로운 일은 이승이나 저승, 그 어디에서도 꺼내 드러내기 어렵다. 꺼내 드러내는 것을 이해해 줄 대상, 애정과 위로로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결핍을 가진

20) 이대형 편역(2013), 위의 책, 51쪽.

21) 이대형 편역(2013), 위의 책, 38쪽, “芳情儻許通幽夢, 永夜何妨慰旅人.”

사람을 만나 상대를 통해 자신의 우울을 바라보고, 그것을 꺼내 이야기함으로써 '속을 풀 수 있는 곳', 그리고 상대를 위로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을 '쌍녀분'은 소망하고 상상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만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최치원>의 작가는 무덤이라는 시공-경계공간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생사를 초월하여 만나게 했다. 이승과 저승이 제공하지 못하는 결핍 응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쌍녀분이라는 공간에 얽힌 심층의 서사인 것이다.

고전서사의 공간이 내포하는 심층서사는 내적 결핍을 응시하는 '시공-경계공간'이다. 공간의 심층서사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상상의 방식으로 포착한 결핍이 인간 보편의 문제, 존재의 문제, 생애의 문제와 연결될 때, 향유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결핍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먼저 인물이 공간의 심층서사 속에서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도록 구상하는데, 인물의 자기 응시가 향유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면 작품의 이야기는 서사력을 얻고, 향유자의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최치원>은 '시공-경계공간'인 무덤의 심층서사를 통해 세계와 단절된 느낌, 위로받고 싶은 불안 등으로 맺힌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무덤에서 만나 서로가 상대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서로에게 이해와 위로가 되어 주는 과정을 그렸다. 이와 같은 심층서사의 특징은 15세기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은 가난한 노총각으로 만복사 구석방에 거처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부처 앞에서 저포를 던지며 '자신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게임에서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달라며 말이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그가 소원 빌기를 마치자, 곧이어 한 여인이 들어와 부처께 기원을 한다. 양생이 숨어서 들으니, 그 여인도 자신과 같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그 밤으로 양생의 방에 가 함께

날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개령동에 있는 여인의 집으로 간다.

개령동 집에서 여인은 자신의 내력을 풀어낸다. 양생과 보내는 사흘 동안, 마음속에 쌓이고 맺힌 우울한 사정을 충분히 드러내 말하는 것이다. 양생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마음 먹는다. 그래서 은주발을 건네주며 다음날 보련사 앞에서 만나자고 한다. 은주발을 들고 여인을 기다리던 양생은 여인의 부모를 만나고, 여인이 3년 전 전란 중에 죽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개령동은 가매장한 무덤이고, 은주발은 시신과 함께 묻은 명기(冥器)인 것이다. 여인의 부모는 그날이 여인의 대상일이며, 천도제를 지내려 보련사에 가는 길임을 알려준다. 이에 양생은 여인의 천도제에 참여하여, 여인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돕는다. 여인이 천도하여 좋은 세상에 가기를 바라고, 천도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따로 제를 올려 여인의 환생을 기원한다. 그 결과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환생하게 된다.²²⁾

<만복사저포기>는 외로운 처지, 즉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이 무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이야기이다. 서로의 만남과 이해의 결과로 양생이 죽은 여인을 환생시켰으니, 이것은 무덤에 갇힌 여인의 생명과 사연을 세상으로 꺼내어 살리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상대를 통해 자기 아픔을 확인했듯, 상대를 치유하는 것은 자기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 무덤은 단절과 소외와 죽음의 공간에서 이해와 화해와 삶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여인은 환생으로 살아났고, 양생은 살리는 존재로 살아났다. 둘 다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룬 것이다.

기존 연구는 <만복사저포기>가 ‘불우 의식’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불

22) 김수연, 탁원정, 전진아, 『동아시아 고전 읽어읽기,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20~40쪽.

우'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굳이 군신의 관계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었던 나를 다시 관계 속으로 살려 내주는 사람이다. 그러한 과정이 무덤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만복사저포기> 속 공간의 심층서사라고 하겠다.

4. 공간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의 방향

: 취약성에의 공명과 서사적 연대의 기획

전기 속 공간의 심층서사는 내적 결핍을 응시할 수 있는 '시공-경계공간'의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전기는 인간의 내적 결핍을 응시하는 공간의 심층서사를 통해 삶의 서사적 전망을 제안한다. 전기의 심층서사가 제안하는 서사적 전망은 인간의 내적 취약성에 공명하고 서사적 연대를 기획하는 것이다. <최치원>과 <만복사저포기>의 심층서사는 심리적으로 같은 처지의 두 사람, 즉 유사한 내적 결핍을 지닌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취약성에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우'라는 상대의 취약 지점에서 나의 '불우'를 발견하고, 상대의 '불우'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공명'의 과정에서 나의 '불우'도 이해받고 위로받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생에서사를 지닌 사람들이 결집하고 연대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러한 서사적 연대는 삶을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생에서사의 수준을 높이는 치유력을 갖게 된다.

많은 향유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을 좋은 콘텐츠라고 한다. 공감은 콘텐츠의 심층서사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서사력에 매료되는 느낌이고, 감동은 심층서사가 제안하는 공명과 연대의 서사적 전망에 심리적으로 참

여하고 동행하면서 느끼는 고양된 감정이다. 고전서사를 활용해 21세기의 공간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할 때, 무엇보다 공감과 감동을 주는 심층서사의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향유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우한 여기’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 세계는 자기 삶의 취약성에 공명해주기 바라는 소망들과, 취약점을 초월할 생애 서사적 전망을 제시해주기 바라는 마음들로 가득 차있는 것이다.

20세기까지 인간은 자기 결핍을 죄악시했고 부끄러워했다. 강하고 빠른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그것이 일정 부분 물질적 성공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많은 콘텐츠들도 인간의 취약성을 지우고 영웅성을 생산하는 데 몰두했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들을 선전했다. 하나의 영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 서사가 파괴되고 소거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한 경향은 삶의 서사가 지워진 채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상처를 남겼다. 이제 사람들은 근본적 결핍을 함께 바라봐주고, 약한 지점에 공명하며 서사적으로 동행하여 취약점의 극복과 치유의 서사로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21세기 콘텐츠는 이러한 소망에 대해 응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²³⁾ 이것이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에서 고전서사가 담당할 역할이기도 하다.

최근 고전서사의 공간 특성과 심층서사를 포착한 콘텐츠 기획이 시도되고 있다. 공간의 심층서사를 통해 인간의 내적 취약성에 공명하고 서사적 연대를 이루려는 노력이다. 이들은 향후 콘텐츠 기획과 교육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작품이 웹툰 <쌍갑포차>이다. 2016년

23) 최근의 히어로 콘텐츠의 변화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다. 예전의 히어로가 모든 면에서 신에 가까운 완벽한 존재였다면, 오늘날 히어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공유함으로써 수신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6월 1일부터 ‘다음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쌍갑포차>는 2017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쌍갑포차>의 핵심은 세계의 영역을 ‘이승’과 ‘저승’ 그리고 ‘그승’으로 설계한 것이다. ‘그승’은 바로 ‘시공-경계공간’이다. ‘그승’은 꿈의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한 꿈은 아니고 현실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²⁴⁾ ‘그승’의 랜드마크는 ‘쌍갑포차’라는 간판을 내건 어설픈 포장마차이다. 쌍갑포차를 운영하는 월주신은 그승의 지배자이자 관리자이다. 또 다른 그승 관리자로서, 월주신을 돕은 미별왕은 그승의 설계자로 소개된다.²⁵⁾

‘그승’은 산 자와 죽은 자, 죽으려는 자와 죽어가는 자 모두가 오가는 공간이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주로 생애 서사가 잘 안 풀린 사람들이다. 진상 고객을 상대하느라 감정을 혹사시키다 끝내 자살을 시도하는 마트의 점원, 젊은 날 한순간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타인의 삶을 파탄낸 후 평생을 죄책감에 빠져 살아온 여인, 생활에 지쳐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주인을 구하고자 하는 길고양이, 고생하는 자손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고 싶은 저승의 조상들, 돌산 같은 서울 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가는 지방 출신 젊은이, 직장의 따돌림과 상사의 갑질에 놀려 생긴 근원적 슬픔의 소금주머니를 자식에게서 떼어내어 대신 짊어지고 가려는 저승길의 아버지 등.

이들은 모두 어느 한 곳 하소연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산 자도 죽은 자도, 사람도 동물도 다 풀지 못한 사연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계 ‘이승’은 그 사연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용광로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흔적 없

24) 제1화 <돼지 뒹고기 숯불구이>에서는 주인공이 자살하러 갔던 고층 건물 옥상에서 쌍갑포차를 발견하고 술을 마신다. 다음날 주인공 손에는 포차 주인에게 받은 비녀가 남아 있어 전날의 일이 꿈이 아님을 암시한다.

25) 제13화 <박숙낙지탕>(1)에서 미별왕과 월주신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이 녹여버릴 뿐이다. <최치원>의 최치원과 팔랑 구랑, <이생규장전>의 양생과 여인처럼 <쌍갑포차>의 인물들은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불우’의 결핍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승’은 그러한 존재 모두의 목소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사연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쌍갑’라는 이름처럼, 쌍방 모두 갑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이승에서는 ‘6411’번 시내버스의 첫차 승객들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이²⁶⁾ ‘그승’에서는 한껏 제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쌍갑포차’의 주인공 주진은 소주 한 잔에 안주 한 접시를 내놓고 인물들의 내적 결핍과 불우의 사연을 충분히 들어준다. 그런 후 진상 고객을 응징하여 마트 점원의 자존감을 살리며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시기심으로 저질렀던 잘못에 용서를 비는 자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길고양이 같은 삶은 사는 불안한 인간과 실제 길고양이 사이의 신뢰와 위로를 돕고, 죽어서도 혹은 죽어가면서도 소금자루 같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진 자식을 돕고자 하는 부모를 이해한다.

웹툰과 영화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주호민의 <신과 함께>도 고전서사의 심층서사를 구현하는 공간을 기획했다.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본다면, <신과 함께>1과 2는 이승과 저승의 ‘시공-경계공간’인 ‘심판 공간’을 제안했다. 이곳의 심판 공간은 편향적으로 문서화된 법리적 판단을 다투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이승의 법리가 지닌 모순과 불합리를 꼬집는다. 이승에서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산 사람, 억울하고 불공평한 생활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 표면적으로 하잘 것 없는 인생 서사를 지닌 사람들이 심판의 공간에 피고로 선다. 그러나 심판의 공간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애 서사가 사실은 ‘귀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해준다. 심판 공간에서 전개되는 것은 불우한 이들을

26) 고(故) 노회찬 의원의 2012년 연설 내용이다.

부족하다 별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인물이 지닌 취약한 지점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공명이다. 심판 공간에서 귀인으로 판정되면 환생을 하는데, 환생을 통해 <신과 함께>는 불우했던 이들이 귀인의 이야기라는 서사적 전망을 자기고 새로운 생애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영화이기에 다소 어색한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작이 지니는 고전적 공간의 심층서사가 잘 그려졌다.

특히 <신과 함께>2 속 공간의 심층서사는 인간의 취약성에 직접적인 공명을 시도한다. 저승차사 강림은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시공-경계공간’의 경계적 존재로 천 년을 살아가야 했다. 강림이 이러한 경계적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이승의 인간이었을 때 자신의 권력으로 타인을 해쳤고, 무엇보다 그 잘못을 제 때 인정하고 용서를 빌지 못했던 일 때문이다. 이 일은 강림을 천 년 동안 괴롭히는 내적 취약 지점이 된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천 년이 지나야 겨우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염라왕은 천 년 전, 죽어가는 인간 강림에게 차사가 될 것을 제안했다. 차사는 죽은 이를 데려오는 임무를 담당하지만, 그 임무의 본질은 이승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제 약점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타인에게 짓눌리는 사람에게는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듯, 권력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상처 낸 사람에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회복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쌍갑포차>와 <신과 함께>는 저승이라는 공간, 월주신과 저승차사라는 캐릭터를 소재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고전서사를 활용하여 흥행한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²⁷⁾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고전서사의 진정한 미

27) 방송평론가 정덕현은 <신과 함께>1,2의 연속 흥행이유를, ‘이승과 저승이라는 소재,

덕은 화소의 발견에 있지 않다. 그것은 고전서사 속 공간의 심층서사, 즉 인간의 내적 결핍을 경청을 통해 응시하는 것, 내면의 취약지점을 이해의 방법으로 공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로 새로운 서사적 전망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쌍갑포차>의 ‘그승’과 <신과 함께>의 ‘심판 공간’은 삶의 취약한 지점들에 공명하고, 그들과 함께 맞히고 불우한 생애서사를 풀어가는 데 동행하려는 마음을 전한다. 이 작품들 속 공간의 심층서사는 개인의 생애서사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러한 서사적 연대의 기획과 결의가 향유자에게 전달되어,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전서사를 통해 공간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기획을 교육할 때, 핵심 방향은 공간을 화소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심층서사가 지향하는 비를 공유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고전서사의 심층서사를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공간 그 자체를 화소로 차용할 필요는 없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아는 와이프>이다.²⁸⁾ 이 작품은 왜 결혼했는지도 모를 만큼 현실에 치여서 매일을 전쟁처럼 사는 부부의 이야기이다. 아내 서우진은 마사지 관리사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쳐있다. 퇴근 후에는 두 아이의 육아가 기다리고 있고, 치매에

블록버스터로서의 불거리, 신파코드'라고 정리했다. 정덕현, 『‘신과 함께’의 흥행공식, 적절한 불거리와 신파코드, 『엔터테이너』, 2018.8.12.

<https://entertain.v.daum.net/v/20180812131229207>

28)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목 9시 30분에 tvN에서 방영했다. 케이블 방송임에도 최고 시청률이 8.21%에 달했고, 방영 기간 내내 드라마부분 1위를 차지했다. (접속일: 2018년 10월 14일)

<https://search.daum.net/search?w=tv&q=%EC%95%84%EB%8A%94%20%EC%99%80%EC%9D%B4%ED%94%84%20%EC%8B%9C%EC%B2%AD%EB%A5%A0&irt=tv-program&irk=82310&DA=TVP>

결린 친정 어머니도 책임져야 한다. 한푼한푼이 귀하고 일분일초가 소중하다. 머리를 감을 시간도 여유도 없어, 젊은 날 풍성하게 늘어뜨리기 좋아했던 머리는 늘 질끈 묶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버릴 수 없어 우걱우걱 먹는다. 그러다 보니 종종 육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남편 차주혁이 마트에서 생각 없이 제 사고 싶은 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끌거나 약속한 아이의 유치원 픽업을 놓치면, 그녀는 거칠게 분노하는 것이다. 남편이 몰래 산 게임기를 보았을 때는 거의 폭발하는 화산처럼 변한다.

물론 남편의 생활도 녹록지 않다. 그럴 듯한 배경 없는 대리급 은행원으로, 상사와 동료들은 물론 온갖 진상 고객들까지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이다. 항상 화가나 있는 아내가 끔찍하고, 폭력적인 아내가 두렵다. 그래서 그는 꿈꾼다. 지금의 아내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그러던 차 차주혁은 우연한 기회에 과거로 돌아가는 톨게이트를 발견하고, 지금의 아내 서우진을 처음 만난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날은 차주혁이 첫사랑 혜원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날 차주혁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어린 서우진을 보게 된 것이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서우진을 돕는 길, 혜원을 만나러 가는 길. 차주혁은 서우진을 돕는 길을 선택하여, 혜원과의 약속을 놓친다. 대신, 서우진과 달콤한 연애를 시작한다. 그것이 차주혁이 걸어온 길이다.

이제 그는 다시 두 갈래 갈림길에 섰다. 이제는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곤란에 처한 서우진을 모른 척하고 혜원을 만나러 간 것이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차주혁은 혜원과 결혼해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재벌가 사위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위세 좋게 은행을 다니고 있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과거가 바뀜으로써 현재가 바뀐 것이다. 그는 서우진이 없는 공간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서사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

된 시공간'은 차주혁의 삶만 바꾼 것은 아니다. 차주혁과 결혼하지 않은 서우진은 자기 관리가 투철한 멋진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다. 물론 치매 걸린 어머니는 그대로지만, 그것도 그다지 비극적이지 않다.

그런데 다시 설계된 이 시간과 공간은 진짜 현실인가? 아니다. 완전한 꿈인가? 그것도 아니다.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공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하는 공간, 실현 가능성과 불가능의 경계 공간, '가지 않은 길'과 '이미 걸어난 길'의 '사이 공간'이다. 이곳은 고전서사에서 흔히 보는 '시공-경계공간'이다. 드라마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여 아내와 남편에게 원하는 생애서사를 마음껏 써보라고 한다. 마치 <구운몽>의 사미승 성진에게 부러워하는 속세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 것과 같다.

자신이 원하는 생애서사를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제공은 그것만으로도 벗어나고픈 현실에 대한 일차적 위로가 된다. 그러나 <아는 와이프>가 재구성한 시공간은 일차적 위로에 머무는 환상만 제공하지 않는다. 차주혁과 서우진은 직장 동료로 다시 만나게 되고, 차주혁은 무섭고 지긋하고 끔찍했던 아내의 내면에 당당하고 빛나는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우진 안에는 멋진 생애서사가 있었지만, 처음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우진은 자기의 고민과 우울을 남편 차주혁이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차주혁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귀 기울이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차주혁은 아내 서우진이 슬픈 멜로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회사 회식에 참석하느라 장인어른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날도 서우진은 멜로 영화를 보며 울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축구경기를 보고 싶다고 했다. 서우진은 영화를 볼 것이라며 악을 썼다. 그때 그는 그녀가 왜 우는지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자존심 강한 그녀가 자기 속내를 충분히 말 할 수 있

도록 기다려주고 경청해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차주혁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우는 것이 멜로 영화 때문인 줄 알았다. 두 번째 시공간에서야 그 눈물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때 넌 울고 싶었구나. 그때 넌 위로받고 싶었구나. 그때 넌 사무치게 외로웠구나. 모르는 척 널 외면했고, 널 괴물로 만든 건 바로 나였구나.”²⁹⁾ 차주혁은 재구성된 시공간, 즉 시공-경계공간에서 자신과 아내 서우진의 내적 결핍과 아픔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임슬립 콘텐츠는 과거로 이동했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그러나 <아는 와이프>는 인물들이 시공-경계공간에서 새로운 생애서사를 써나가도록 허락한다. 차주혁과 서우진은 이제 상대의 속사연을 모르척하지 않는 부부서사를 선택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새로운 결혼생활도 녹녹지 않아 처음과 다름 없이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함께 가기로 약속한 이들이기에 그들의 부부서사는 이전과 같지 않다. 위기가 닥쳐도 두 사람은 함께 부부서사의 주체적 동반자로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아는 와이프>가 많은 사람들, 특히 연인과 부부들에게 공감 받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층서사의 지향 때문일 것이다.

신동훈은 수많은 <바리데기> 콘텐츠 중에서 제주의 올레길이 원천 서사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했다.³⁰⁾ 제주의 올레길은 얼핏 보면 <바리데기> 이야기와 무관해 보인다. 바리데기 관련 캐릭터 이미지도 없고, 바리데기가 거쳤던 공간을 화소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바리데기의 고행

29) <아는 와이프> 제6회, 2018년 8월 16일.

30)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2011, 142쪽.

을 체험하는 이벤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향유자는 바리데기가 고행 길에서 직면했을 삶의 내력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에서사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공감하게 된다. 이것은 올레 길이 <바리데기>의 공간을 화소나 표층서사 차원이 아니라 심층서사 차원에서 차용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향후 공간 콘텐츠의 기획과 교육 또한 가시적인 소재나 표층서사보다 인간과 공간의 심층서사가 만나고, 공명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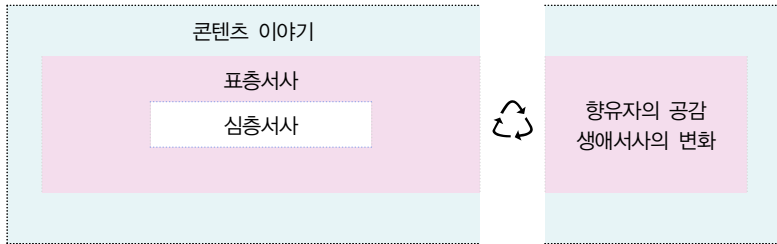
5. 마치며-고전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교육의 전망

콘텐츠는 매체에 담긴 내용을 의미한다. 콘텐츠의 매체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는 요소이고, 핵심은 내용에 있다. 따라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의 관건은 매체가 아니라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기획에서 고전문학이 담당하는 역할도 바로 내용을 설계하는 일이다. 그러나 소재적 화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고전문학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고전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콘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이 서사력을 갖춘 이야기가 될 때 향유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향유자의 공감 여부가 콘텐츠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을 교육할 때, 소재적 화소의 숙지나 그것을 이용한 표층서사의 구성보다 향유자에게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31) 콘텐츠의 형식이 시각적 이미지나 시적 암시여도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향유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심층서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하여 기획에 적용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콘텐츠 이야기 속 공간의 심층서사에 대해 살폈다. 그러나 공간에만 심층서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심층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고전에서 우리는 이들 심층서사의 원형적 모습과 근본적 가치를 드러낼 서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력을 갖춘 이야기는 향유자에게 이성적 각성뿐 아니라 정서적 감동을 줄 수 있다. 이야기는 오랜 시간을 거쳐 검증된 정보와 감정의 전달 방식이자 공유방식이기 때문이다.³²⁾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향유자가 들어오게 된다. 콘텐츠 이야기 속 심층서사의 수준과 지향에 따라 이야기의 서사력이 결정되고, 이야기의 서사력은 향유자를 공감의 방식으로 텍스트 공간 안으로 초대한다. 콘텐츠 이야기에 초대된 향유자는 이야기의 심층서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텍스트와 함께 자신의 결핍과 취약점을 응시하고 이해하며 위로한다. 고양된 공감 속에서 심층서사와의 연대감을 확인한 향유자는 자기 삶의 서사를 재구성할 힘을 갖게 된다. 우리는 한번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영화의 서사적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32)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 역사와 과학이 모두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5;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나도 오늘부터는 나를 사랑해야지’ 혹은 ‘앞으로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살아야지’라고 자기 삶의 서사를 바꾸는 선택을 했던 경험이.

콘텐츠로 인해 내 삶의 서사를 바꾸고자 했던 선택이 내 생애 중 하루 또는 한 시간 정도만 지속된다 해도, 나의 생애서사의 방향은 이미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만약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생애서사가 하루씩 변화해 간다면, 향유자는 내적 결핍을 충족하고, 취약점을 치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작품이 삶을 바꾸었다’는 말은 특정한 위인의 성스러운 고백이 아니다. 향유자의 생애서사가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콘텐츠 기획이 고전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예센은 정보화 시대의 다음 단계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이야기에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영화나 광고는 물론 경제 활동에서도 이야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계란 하나를 구매할 때, 저렴한 공장 제품보다는 비싸도 사연이 담긴 것을 선호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것은 미래 경제활동의 속성이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 상품에 담긴 이야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감성적 가치에 의한 상품의 선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에,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이야기도 개발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미래 기업의 리더는 경영인의 자질보다 이야기꾼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국가나, 지역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강조했다.³³⁾ 롤프 예센의 사회적 전망은 고전이 참여하는 콘텐츠 기획 교육이 그 무엇보다 이야기의 발견, 특히 심층서사의 발견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3) 롤프 예센, 서정환 역, 『드림 소사이어티』, 리드리드출판, 2005, 14~15쪽.

참고문헌

- <쌍갑포차>,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pocha>
- <신과 함께>-죄와 벌, 2017년 12월 20일 개봉.
- <신과 함께>-인과 연, 2018년 8월 1일 개봉.
- <아는 와이프>,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 tvN 방영.
- 김수연, 탁원정, 전진아, 『동아시아 고전 읽어읽기,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4~304쪽.
- 김연수, 「문학공간 ‘현저동’이 지나는 상징적 의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301~326쪽.
-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1995, 31~52쪽.
- 이정원,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 시학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1~187쪽.
- 롤프 예센, 서정환 역, 『드림 소사이어티』, 리드리드출판, 2005, 5~278쪽.
- 박일용, 「전기계 소설의 양식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변모양상」, 『민족문화연구』 28, 1995, 69~92쪽.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5~256쪽.
- 변찬복, 박종호, 「문학공간의 장소성 분석에 근거한 관광콘텐츠화 방안: <탁류>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31, 2016, 69~90쪽.
-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2011, 117~146쪽.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5~346쪽.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5, 6~636쪽.
-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5~315쪽.
- 이대형 편역, 『수이전』, 소명, 2013, 3~359쪽.
- 정덕현, 「‘신과 함께’의 흥행공식, 적절한 볼거리와 신파코드」, 『엔터테인먼트』, 2018.8.12. <https://entertain.v.daum.net/v/20180812131229207>
-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2017, 5~30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2018, 119~

159쪽.

조영준, 「영화 ‘인랑’의 부족한 점, 이야기의 연약한 연결고리」, 『오마이뉴스』, 2018.8.1.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5916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ABSTRACT

In-depth Narrative of Korean Classical Novels
and Contents Design Education

Kim, Soo-youn

It is not the skill level of the medium that determines the power of the contents, but the story inside. If the story of the contents is strong enough, the empathy of the enjoyer can be obtained. The story of the content consists of the surface narrative and the in-depth narrative. Among them, it is the in-depth narrative that decides the power of the story. In-depth narratives usually deal with questions about human relationships and exist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direction of planning and education of contents, focusing on the spatial features and in-depth narratives of classical novels.

The space of classical novel is characterized by 'Boundary space of time and space.' In the bounding space, the characters meet, talk, listen to each other, gaze at each other's deficiencies, resonate with it, and cooperate in a narrative manner. In this process, the enjoyers also find their own lack, empathize with it, and understand and receive it. They constantly interacts with the in-depth narrative, and have the power to reconstruct the narrative of his life in elevated empathy. In the future, classical novels should contribute to the ways in which the in-depth narrative of the contents and the inner side of the enjoyers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Key Words Contents, Story, the power of the story, Surface narrative, In-depth narrative, Boundary space of time and space, *Choe-chiwon*, *Yiseng-guijang-jeon*, *Ssang-gab-po-cha*, *Along with the Gods*, *Familiar wife*

논문투고일	: 2018.10.15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